

김동조 前 외무장관을 기리며...

헤럴드경제

기사입력 2004-12-10 11:56 | 최종수정

"풍랑시대 곳곳이... 편히 잠드소서"

설국환 대한여행사 회장의 추도사

숙환으로 오랫동안 힘들어하던 해오(海吾·김동조 전 외무부 장관)가 어제 86세를 일기로 영면하였다. 적은 연세는 아니지만 워낙 강건한 체질이라 좀더 장수할줄 믿었는데 이렇게 되고 보니 안타깝고 애석하기 그지없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그가 가고 나니 이제 내게는 친구가 하나도 없는 듯하다. 허전함이 마음을 적셔온다.

호를 해오라 지으며 "바다가 자기 것"이라고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우기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비록 태어난 곳은 달라도 같은 해 태어난 인연으로 해오와 나는 죽마고우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나보다 열흘 앞서 1918년 8월 14일 부산에서 출생한 그는 어제 세상을 뜨기까지 한국에서 가장 고독한 외교관이었으며 가장 철저한 공무원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오늘날까지 한국 사회, 한국 민족이 참 많은 일을 겪었는데 해오는 그 부침 많은 시대의 정중앙에 서 있었다.

태어나자마자 이듬해 1919년 3·1운동으로 시작된 해오의 일생은 치열함과 책임감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시절이었다. 고등사범학교를 졸업한 뒤 다시 규슈제국대를 나온 해오를 정계로 이끈 것은 허정 선생이었다.

당시 체신부 장관이었던 허정 씨가 해오를 비서실장으로 중용했고 그것이 인연이 돼 외무부 총무과장으로 발탁이 됐다.

파란 많은 해오의 외교가 시작된 것은 역시 사람을 중시했던 그의 성격이 다른 사람의 눈에 들었기 때문이리라.

해오는 한국 외교에 활력을 불어넣은 사람이다. 오죽하면 이승만, 박정희 두 대통령이 그를 아껴

"외교에 해오가 있다"라고까지 했을까.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해오만큼 외로웠던 사람도 없다. 한·일 교섭을 할 때 얼마나 반대가 많았던가.

박정희 대통령으로 보서는 나라 발전을 위해 어찌됐건 한·일 회담을 성사시켜야 했다. 묵묵히 그 총대를 멘 것이 해오였다.

나라 초창기부터 바로 어제까지, 해오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평생을 외교에 투신했다. 누가 뭐라 해도 누가 좋다 나쁘다 해도, 이것이 나라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해서 아낌없이 심신을 불태웠다.

한·일 회담을 결론까지 이끌어갔고 그 후에는 대미외교의 새 길을 열었다.

곤혹스러운 일들을 겪으면서 욕하는 사람이 많은 데도 해오는 한 번도 옆이나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우리나라에 들어 없는 인물. 앞으로도 하나밖에 없는 사람, 해오는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고 생각된다.

그가 떠남으로써 이제 나의 친구는 이 세상에 없다. 해오, 이 세상에 그대의 경상도 사투리와 넉넉한 마음을 잊지 못하는 우리들을 남겨두고 부디 넓은 바다로 가시게나.